

캐터필라 307C(04급) 소형 굴삭기 출시

성능도 2배!! 수입도 2배!!!
대한민국 소형 굴삭기 시장의 1%
당신은 이제 시장의 리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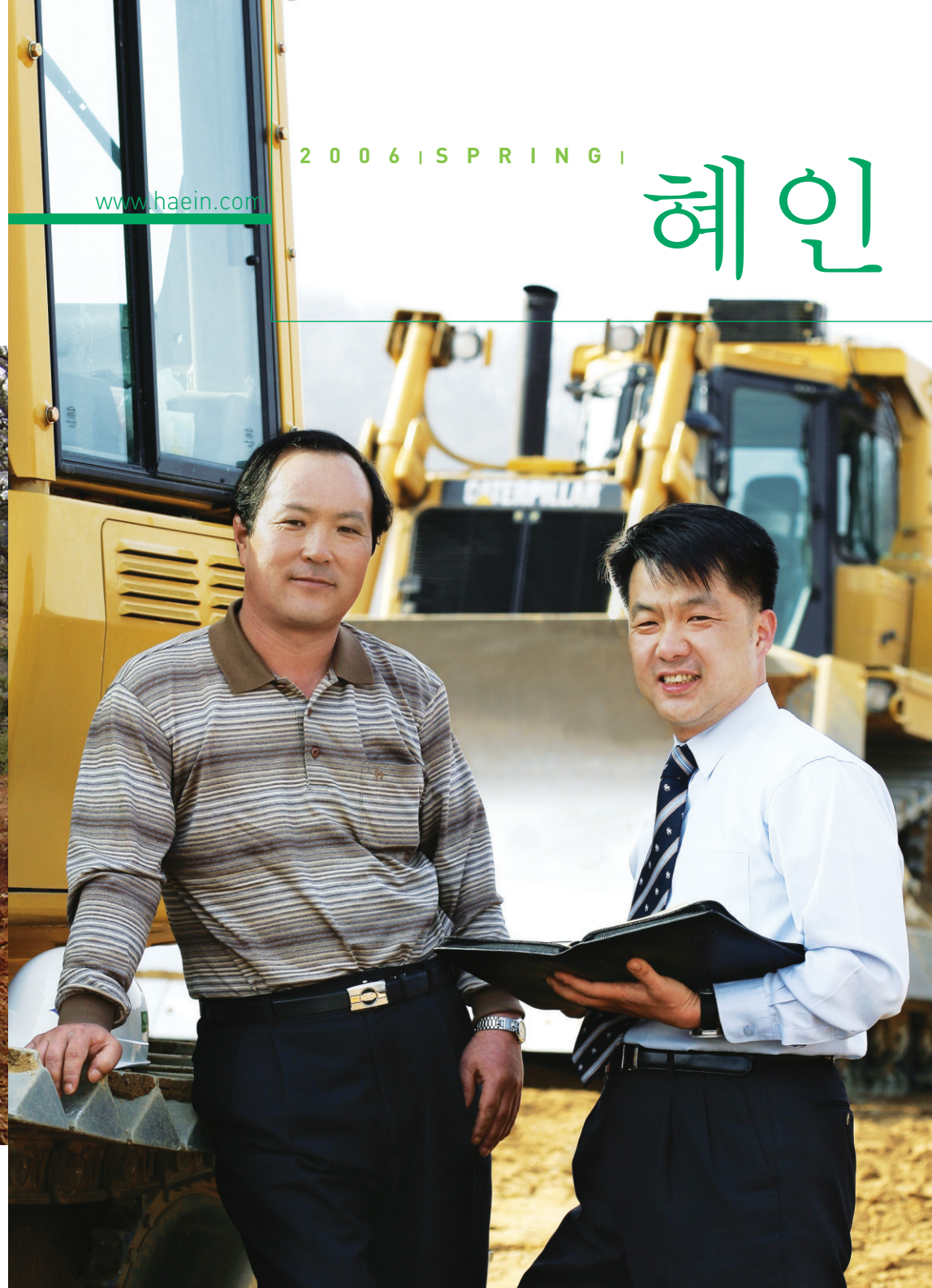


CAT 307C

2006 | SPRING |

www.haein.com

헤인



움츠렸던 대지 위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는 씨앗

모든 생명을 틔우는 힘이자,

순환을 가능케 하는 찬란한 생명력.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함을 일깨워주는

씨앗과 함께 헤인의 봄을 엿보다.

Contents

Theme@haein ... 03 프롤로그 | 04 Theme Essay | 06 Theme Space | 10 Theme Diary
Family@haein ... 12 Haein Utopia | 14 People&People | 16 트렌드 돋보기 | 20 최고의 장비
Human@haein ... 22 Info Prism | 24 헤인 뉴스 | 26 비교체험 극과극

표지 설명 : 오렌지 엔지니어링 나종상 상무와 (주)헤인 백성락 차장이 활짝 웃고 있다.

2006년 봄호(통권 251호) | 2006년 4월 3일 발행 | 1993년 10월 20일 등록(등록번호 바-2006호) | 발행 겸 편집인 원경희 | 발행처 주식회사 헤인 (www.haein.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92-6 헤인빌딩(02-3498-4500) | 기획 및 디자인 편집 디자인실 외곽(02-3447-7601) | 인쇄 대로인쇄(02-2278-0773)

Special Theme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힘;
봄호 이야기, 생명을 틔우는 힘;

6 씨앗 9

찬란한 봄의 상징은 초록빛 생명들. 그 초록 뒤에는 얼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난 한 알의 씨앗이 있다. 비록 작지만,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의지로 희망의 꽃을 피워 올리는 위대한 생명의 모태. 씨앗은 우리에게 자연 순환의 겸허함과 순리의 지혜를 가르쳐준다.

글 / 송효순(자유기고가)

위대한 생명의 모태 ‘씨앗’



삶이 움트는 계절의 씨앗, 새 봄

또 다시 봄이다.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겨울을 녹이며 봄빛으로 물오른 아지랑이가 대지 위로 피어오르는 계절, 새 봄! 어느덧 천지에는 봄기운이 가득하다. 이미 남도에서는 연초록의 보리가 한 뼀이나 솟아올랐고, 섬진강변 매화도 첫초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따사로운 햇살, 물오른 초록잎, 노래하듯 흐르는 물소리 등 봄은 걸음걸음마다 연푸른 기운으로 대지를 물들이고 있다. 이렇듯 사계절중 가장 어린 싹들로 채색되는 대지, 다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새 봄은 바로 계절의 씨앗이다. 김지하 시인이 '우주의 밑바닥에서 목련이 피어오른다'고 노래한 것처럼, 새 봄은 우주의 밑바닥에서 새 생명이 눈을 뜨는 계절의 씨앗인 것이다.

생명의 에너지, 봄의 판타지

생동하는 기운으로 대지를 충만하게 하는 이 봄의 가장 놀라운 판타지는 바로 '씨앗'이다.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마른 씨앗 하나가 툭 터지면서 속살처럼 돌아나는 새 생명의 연둣빛 희망! 긴 겨울 내내 화사한 꽃망울과 어린 새싹을 가슴 깊은 곳에 간직했던 씨앗들은 산자락, 들녘, 길가 어디서나 지천으로 돌아나는 새로운 시작의 전령이다.

한 알의 작은 씨앗이 한 포기의 풀, 한 송이의 꽃, 한 그루의 나무를 이루는 강력한 힘. 바로 한 알의 씨앗에는 이처럼 수많은 생명의 에너지가 농축되어 있는 것이다. 때문에 한 알의 씨앗은 종종 세계를 바꾸기도 한다. 인류 문명의 시작부터 함께 해 온 씨앗. 식생활의 기본이 되는 벼, 밀, 보리, 콩이며 커피조차 모두 씨앗이다. 벼는 밥이 되고 떡이 되고, 보리는 빵이 되고 술이 되고, 콩은 메주가 되고 두부가 된다. 한 알의 씨앗이 문화를 이루고 경제의 초석이 되는 역사의 숨은 주역이었던 것이다.

자연 순환의 메신저

차(茶) 또한 한 알의 씨앗으로 시작된다. 차나무는 봄에는 잎들의 생장이 왕성하고, 가을이 되면 뿌리 활동이 활발해지며 하얀 차꽃이 핀다. 이 차꽃은 씨앗을 머금고 있는데, 꽃으로 태어난 어린 차 씨는 다시 나무로부터 떠날 준비를 한다. 이 시기에 차꽃을 따준다. 봄에 어린 잎을 틔우기 위해서이며, 또한 떠날 시기에 떠나지 않으면 생명력이 손실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립한 씨앗은 겨울을 지낸 후 다시 새로운 차나무로 자란다.

그러나 어찌 차 씨만의 일생이겠는가. 지난 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묵묵히 견디고 결실의 가을을 맞은 후 땅에 떨어져,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고스란히 머금은 채 시간의 터널을 지나 숙성 발효된 한 알의 결정체. 그것이 바로 봄의 또 다른 이름인 씨앗이다. 또한 씨앗은 1년여 동안 서두름 없이 하나하나 이뤄 가는 자연 순환의 메신저이다. 씨앗은 모든 생명의 본성인 순환 속에서 그 생을 이룬다. 어둡고 추운 시간을 지나 다시 찾아온 봄의 씨앗으로부터 생명 순환의 이치와 순리의 겸허함을 배워야 하는 까닭이다.

인내와 긍정의 힘으로

아무리 큰 숲도 그 시작은 작은 씨앗 하나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씨앗을 키워가는 인내와 그 씨앗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릴 것을 믿는 긍정의 힘이다. '불시일번 한철굴(不是一番 寒徹骨) 쟁득매화 박비향(爭得梅花 撲鼻香)'이라는 당나라 고승 황벽선사의 詩가 있다. 한번 추위가 뻗속까지 스미지 않고는 어찌 진한 매화의 향기를 얻겠느냐는 뜻이다. 기나긴 겨울 동안 얼어붙은 대지도 갈아엎어야 새 싹을 낼 수 있는 법이다. 누구나 어렵고 힘든 저마다의 상황들이 있기에 마련이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은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상기할 일이다. 씨앗이야말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이자 생명의 모태이기 때문이다. 한 계절의 끝이기에 슬프고 다른 계절의 시작이기에 황홀한 새 봄. 이 봄을 더욱 아름답게 추억하기 위해 씨앗을 뿌리자.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를, 역경 속에서 다시 일어날 용기를...

세상을 틔우는 씨앗의 하모니



희망의 씨앗 무료 급식하는 민들레 국수집 서영남



밥 퍼주며 희망의 불씨를 지피다

인천시 동구 화수동, 거미줄처럼 얽힌 좁다란 골목길을 지나가다 보면 흰색 바탕에 노란색으로 쓰인 '민들레 국수집' 간판을 볼 수 있다. 빛이 바래서이기도 하고, 겉으로는 그 흔한 메뉴도 쓰여 있지 않은 음식점이라 자칫 그냥 지나치기 쉬운 곳이 바로 이곳이다. 예사롭지 않은 조그마한 식당 민들레 국수집은 어느 음식점 못지않게 손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25년 동안 화사를 다녔다고 쳐봐요. 임원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일을 하던가요? 그냥 하루가 똑같고 품만 잡게 되지. 그래서 나왔어요."

민들레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영남 씨는 스무 살을 막 넘었을 때 수도원에 입회를 했다. 그곳에서 누구보다 더 깊은 신앙심으로 25년을 보냈다. 그러다 문득 그동안 이곳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을 세상에 나가 실천해야지 생각했고 달랑 가방 하나만을 들고 수도회 문을 처음으로 나섰다.

"여기가 전부인 줄 알다가 나이 마흔이 넘어서 세상에 나오니 정말 나조차도 의지할 데가 없고 막막하더라고요."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는 말 앞에는 늘 '젊어서'라는 단어가 붙는다. 옛말은 다 맞다는 전제를 들지 않더라도 서영남 씨의 외출은 고되고 힘든 나날들이었다.

"우선 수도회 생활 때 했던 재소자들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갔죠. 그리고 주위에 몇 안 되는 분의 도움을 얻어 출소자를 위한 쉼터도 마련했습니다. 3년 운영하고 나서 민들레 국수집 문을 열게 되었죠."

자신이 국수를 좋아해서 국수집을 열었는데 문을 열고 열흘도 안 돼서 밥집으로 바꿨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국수보다 더 절실한 건 역시 밥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셈이다. 민들레 국수집은 노숙자들을 위한 식당이지만 배고픈 사람은 누구라도 아무 조건 없이 어느 때나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다. 무료급식소처럼 줄을 서지 않아도 되고, 교육이나 설교를 듣지 않아도 된다.

"애나 어른 할 것 없이 사람은 육아매면 안 돼요. '당신도 나랑 똑같소' 하는 생각만 하게 해주면 언젠가 그분들도 희망을 찾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조건 없이 밥 대접 만큼이나 사람을 대접해주자는 서영남 씨의 생각은 지금도 민들레 국수집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무력무력 자라는 성장의 새순

“지하철이 들어오는 긴 신호음이 들렸고, 순간 내가 잘못 봤겠지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2005년 11월 3일 오후 9시 7분경. 안암역에서 봉화산행 지하철을 기다리던 다섯 살 정도의 아이가 엄마가 잠시 눈을 돌린 사이 발을 헛디더 지하철 선로 쪽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누군가 아이가 떨어졌다는 소리를 질렀지만 아이 엄마조차 놀라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고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만 점점 커져갔다.

“나중에서야 지하철 CCTV를 통해 봤는데 제가 간이 큰 건지 다시 한 번 봐도 별로 아찔하거나 위험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평소 친구들과 이곳에 와서 축구나 농구를 즐겨했는데 그게 도움이 됐나 봐요. 제가 봐도 몸이 날쌔 보이던데요.”

남들에게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엄청난 사건(?)을 김대현 군은 지금도 해맑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다.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했던 일이라 평소의 성격은 어떨까 궁금했는데 김대현 군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그를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가장 중립적인 성격이라 말한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도 농구 시합에서 지면 남들처럼 ‘욕’ 하기도 하고, 급한 성격도 있어요. 뭐 제 나이 또래들은 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통해 다시 한 번 이 사회의 희망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지만 김대현 군은 내내 자신의 특별하지 않은 평범함을 알리려고 애쓰는 눈치다.

“뉴스에서 김밥 장사를 하며 수십억을 사회에 장학금으로 기부한 할머니 얘기를 들었을 때 저 역시 그런 일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저에게 그런 일이 닥치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니어도 누군가 그 일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여러 상을 받았고, 일본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지만 그것들은 모두 한때였다. 다행히 김대현 군의 아버지는 미리부터 그런 일에 우쭐하지 말라며 아들에게 사려 깊은 충고를 해주었고, 그 역시 큰 일이 있기 전의 그로 돌아가 언제나 그랬었던 것처럼 생활하고 있다. 김대현 군은 현재 서울디지털고등학교에서 멀티미디어와 게임제작을 공부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 중이다.

성장의 씨앗

지하철 선로에서 아이를 구한 고등학생 김대현



씨앗을 나누며 삶의 진리를 나누다

동천(動川), 개울물이 움직인다는 뜻. 이 말은 귀농인 유동석 씨가 인터넷에서 쓰는 닉네임이다. 물론 닉네임보다 사람들에게 더 잘 알려진 그의 이름은 ‘씨앗 나눠주는 사람’이다.

공직생활을 하던 유동석 씨는 5년 전 위암 수술을 받고 퇴직해 지리산 깊은 산골로 들어왔다. 오래 전부터 오며가며 보아두었던 이곳을 자신의 노후 보금자리로 여겨왔던 터였다. 물론 건강상의 이유로 예정보다 일찍 들어오긴 했지만 어쨌든 잘된 일이라 생각하기로 했다.

“5년 동안 벼농사를 무공해로 지어본답시고 논을 같은 다음 법씨를 논에다 그대로 직파하고, 풀 뽑아주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나 먹을 것만 겨우 수확했죠. 제가 고집하는 무공해 농사란 것도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리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작물들이나 나무들은 정성을 들인 만큼 잘 자라주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의 농장 이름은 에덴동산이다. 유동석 씨가 특히 애착을 갖고 있는 각종 유실수와 약용식물, 화목류(꽃피는 나무/식물), 관상수들이 잘 자라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다. 물론 그의 바람처럼 이 모두가 현재 너무나 잘 자라고 있어 예정대로 에덴동산을 꿈꿀 수 있을 것도 같다고 한다.

초보 농사꾼의 모습을 어느 정도 벗어날 무렵부터 유동석 씨는 사람들에게 씨앗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농장을 시작한지는 5년이 되었지만 그동안 묘목들을 키우느라 작년에야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나누어준 것은 주로 돼지감자와 묘목들인데 돼지감자는 요즘 당뇨에 좋다고 하여 종자용(2kg 정도)으로 70여 분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었습니다. 그 종자용을 잘만 키워 가을에 수확하면 두세 자루는 되지요.”

생명의 씨앗 씨앗 나눠주는 사람 유동석

유동석 씨는 처음 농장을 가꿀 때 주위 분들에게 도움 받은 게 너무 고마워서 평생 이렇게 나누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농사도 농사지만 유동석 씨는 앞으로 이곳에 꼭 흠집이라도 지을 예정이다. 형편상 화려한 펜션은 지을 수 없지만 이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란다.

“이곳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하룻밤 편히 쉬면서 조금이나마 같이 느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멋진 곳을 여행하다가 행여 길이라도 잘못 들어 에덴동산에 들리게 되면 급하게 나올 생각은 말고 이곳에서 하룻밤 머물며 밤새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사진제공 / 오현주 기자 <자연을 닮은 사람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비단 사람만을 두고 한 말은 아니지 싶다. 단단한 씨앗을 뚫고 나오는 여러디 여러 새싹채소가 품고 있는 놀라운 힘을 보면 말이다. 웰빙이 대세인 카운테 '슬로푸드'의 대명사인 새싹채소에 대한 관심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새싹채소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나쁜 봄날 새싹채소로 내 몸에 활기찬 봄기운을 불어넣는 것은 어떨까?

글 / 한화련(자유기고가)

파릇한 봄을 먹자! 싱싱한 새싹채소

새싹채소, 왜 인기일까?

새싹채소는 씨앗을 발아시켜 본잎이 1~3개 정도 나온 어린 채소로, 흔히 먹는 콩나물과 숙주나물은 물론 겨자씨, 브로콜리씨, 적양배추씨 등 20여 가지가 있다. 새싹채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유효성분이 다 자란 채소보다 4배 이상 많은데 그 이유는 새싹이 돌아나는 시기에 성장력이 가장 왕성하며 발아할 때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가 응집되기 때문이다. 각 새싹마다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한 새싹채소는 특히 비타민, 단백질, 미네랄 등이 풍부하고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미네랄 성분인 칼슘, 마그네슘, 구리, 인, 아연, 철분 등 12가지 원소가 충분히 들어 있어 미네랄이 부족할 경우 생기는 만성피로 증후군을 예방하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체 내부의 자체 정화능력이 싹과 싹의 겹에 자극을 받아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며, 다량의 섬유질로 인해 통변이 잘 되고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다.

특별한 도구 없이 물만 잘 주면 어디에서나 잘 자라 초보자도 키우기 쉽고, 짧은 시간에 수확할 수 있다는 것, 살균제나 제초제, 성장촉진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무농약 무공해 식품이라는 것도 새싹채소가 인기 있는 이유다.

새싹채소별 효능

무씨 : 체내의 열을 제거하고 몸의 부기를 가라앉히며 폐 활동을 활발히 한다.

브로콜리씨 : 설포라판이라는 항암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암세포를 억제한다.

겨자씨 : 몸 안의 어독(魚毒)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으며 비타민A, C가 풍부하며 카로틴, 칼슘, 철을 함유하고 있다.

해바라기씨 : 칼슘을 함유하여 뼈와 치아에 좋고 지방과 탄수화물은 근육조직의 상태와 신경계를 좋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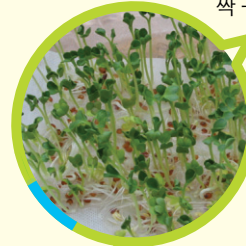
옥수수씨 : 피부의 건조와 노화예방, 피부 습진 등의 저항력을 높이는데 좋다. 장을 깨끗이 하고 식욕을 좋게 한다.

케일씨 : 비타민C, 카로틴, 단백질 함량이 높다. 간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게 하는 기능과 고혈압증을 개선시키고 혈당치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작용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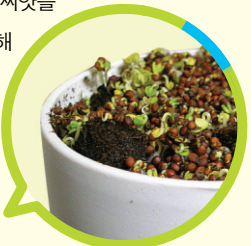
새싹채소를 이용한 웰빙 요리

가장 간편한 방법은 새싹채소에 허니 머스타드 소스나 아일랜드 드레싱을 뿌려 샐러드를 만들거나, 프라이팬에 살짝 구운 두부 위에 참기름과 간장 · 깨소금으로 버무린 새싹을 얹어내는 것. 밥이나 면과 함께 새싹채소를 담아내고 초장 등의 양념으로 비비면 한 끼 식사로 손색없는 새싹비빔밥이나 새싹비빔면이 된다. 딸기 · 바나나 · 베이컨 · 치즈 등과 함께 식빵에 얹어 마요네즈를 뿌려 먹는 새싹 샌드위치는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다. 어딘가 나른해진 몸을 위해 새싹채소를 이용한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을 듯하다.



손쉽게 기를 수 있는 새싹채소

- 발아를 돕기 위해서 먼저 물속에 약 8시간 정도 불리는 것이 좋다.
 - 수분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혹시 섞여 있을지 모를 안 좋은 씨앗을 솟아내는 방법도 된다.
 - 물컵 만한 작은 화분에 절반가량 배양토를 담고 충분히 적셔질 만큼 물을 준 후 그 위에 씨앗을 고루 뿌려 싹이 날 때까지 종이로 덮어둔다. 배양토가 없을 경우 젖은 솜이나 천을 사용해도 괜찮다.
 - 매일 하루에 1~2번씩 분무기로 물을 뿌린다. 물은 정수기 물이 좋으며, 수돗물을 쓰려면 받아서 하루쯤 두었다가 웃물을 준다.
 - 3/4정도 싹이 났을 때 종이를 걷어 해가 드는 곳으로 옮겨두면 7~10일 후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란다.
 - 이도저도 귀찮다면 아예 새싹재배기를 활용해 볼 수도 있다. 5만원 안팎에 살 수 있는 새싹재배기는 씨앗을 넣고 물 관리 버튼만 눌러주면 알아서 새싹채소를 길러준다.
- ※ 일반 씨앗은 농약이나 방부제 처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새싹을 먹도록 선별된 씨앗을 사용해야 한다. 새싹 채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싹 전용 씨앗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씨앗은 씨앗 전체에 농약이나 방부제 처리가 되어있기 때문. 또 되도록이면 국내산 씨앗을 사용하는 것이 성공률이 높다.



새만금간척사업, 헤인도 함께 된다

지금까지의 자연 환경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하나의 구조물이었다. 그리고 자연환경은 그 속에서 쉼과 여유를 주는 감성의 바탕이 되었다. 하지만 진화하는 기술은 자연환경에 플러스 알파의 가치를 더해 윤택한 삶을 위한 개발로 거듭나게 만들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을 위한 가치 창조. 그 중심에 새만금간척사업이 있다.



새만금간척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33km의 방조제를 설치해서 1억 2천만평의 토지와 연간 10억톤의 수자원을 확보해서 미래자원을 충당하는 사업이다. 1991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새만금간척사업은 가력도와 신시도에 배수갑문을 설치하고 두 곳을 잇는 방조제를 쌓는 방조제 사업 막바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방조제 독을 설치하고 바다를 메꾸는 작업에 캐터필라 장비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작년 가을부터 새만금간척사업 현장에 캐터필라 장비가 들어와 일하고 있습니다. 가력도, 신시도, 중앙방조제 3곳으로 나뉘어 현재 34대의 캐터필라 장비가 가동 중인데요. 현장 근무자들로부터 캐터필라 장비의 우수한 성능은 이미 소문이 자자합니다.”



캐터필라 장비 관리를 위해 이곳 현장을 자주 오가는 (주)헤인 장석의 소장의 말이다. 바닷가라는 지형 특성상 하루에도 몇 번씩 날씨가 흐렸다, 개었다를 반복하는 중잡을 수 없는 현장이지만, 캐터필라 장비가 세계 최대의 간척사업에서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장석의 소장의 얼굴에서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그도 그럴 것이 가력도와 신시도, 중앙방조제 공사현장에서 다른 장비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보이는 캐터필라 굴삭기와 불도저, 덤프트럭의 모습은 듣직함 그 자체였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캐터필라 장비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생각하며 돌아오는 길,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공간과 미래 물부족 현상을 해소시켜 줄 새만금간척사업의 완공이 기대되었다.

글 / 손완주, 사진 / 이승혁

머리를 맞대고 어깨를 기댄 '상생'

사람과 사람 사이만큼 어려운 관계가 있을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여건을 맞춰 조화를 찾는 일. 그것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사람 사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다. 머리를 맞대고 있는 사람 자처럼 서로가 어깨를 기대며 도움을 주고 받는 오렌지 엔지니어링 나종상 상무와 헤인 CAT 장비 영업팀 백성락 차장을 만나 '조화로운 사람 살이'의 비결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강원도 횡성 동원썬밸리 CC 공사 현장. 올해 10월 라운딩을 목표로 진행 중인 이곳 공사현장에서 오렌지 엔지니어링 나종상 상무가 공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40만 평의 대지 위에서 캐터필라 D3G, D6R 등의 불도저와 325CL, 330CL, 345BL II 등의 굴삭기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기술이 갖고 있는 힘의 우위를 입증하는 듯했다.

오렌지 엔지니어링은 국내 골프장 공사의 60~70%를 시공한 건설한 건설업체. 1991년 창설 이래 영종도 SKY 72 GC, 제주 나인브릿지, 무주 리조트, 화산 CC, 마이더스 CC 등 20여 개의 굵직한 골프장을 시공하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공사에서는 인허가에서부터, 설계, 토목, 조형, 조정까지 중요하지 않은 과정이 없잖습니까. 과정별로 최선을 다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오렌지 엔지니어링의 성장 비결입니다. 한 마디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종상 상무가 오렌지 엔지니어링이 전진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앞선 기술력을 위해서는 그것을 뒤받침 할 준비가 필요하기에 나종상 상무는 91년 오렌지 엔지니어링 설립 후 계속 캐터필라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캐터필라 장비의 좋은 품질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정기적인 점검을 한다는 것도 캐터필라 장비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다른 회사 장비는 고장 나면 공사를 중단하고 장비를 수리해야 하는데, 캐터필라 장비는 정기적으로 점검도 해주고, 고장 시 신속하게 수리를 해주니까 공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효자 장비라고 할 수 있죠.”



현재 나종상 상무는 횡성, 양양, 속초 3곳의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현장 관리와 장비 관리를 하고 있어서 장비에 관한 한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나 상무님은 장비에 대해 잘 아시는 만큼, 장비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캐터필라에서 불도저가 새로 출시되었다고 하면, 어떤 업체보다 빨리 구입을 하시죠. 올해 2월 구입한 D9T도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처음으로 사용하고 계시고요”라며 헤인의 CAT 장비영업팀 백성락 차장이 말한다.

“백 차장이야 말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한 발 먼저 뛰는 사람입니다.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고 말만하면 신속하게 공급해주니까, 백 차장을 떠올리면 든든한 마음이 들지요. 그리고 뭔가를 문의하면 바로 바로 피드백을 해주니까,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 체감됩니다.”

주거니 받거니 서로를 칭찬하는 나종상 상무와 백성락 차장의 모습에서 뜻을 맞춰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라는 말이 떠올랐다.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에게 도움을 주려 노력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조화로운 사람 살이'의 답을 찾은 듯했다.

글 / 손원주, 사진 / 김경록

국내 건설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안

작년 8.31 부동산 대책 이후 침체된 건설 시장이 상승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침체된 건설 시장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시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국내 건설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안을 들어본다.

글 / 이상호(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건설산업 양극화 해소 위해 신성장동력 창출 필요

최근 들어 양극화 문제가 한국 사회의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건설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양극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건설시장 규모가 정체된 데 있다. 일반건설업체 수주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2003년 이후 건설시장은 100조원 규모에 머물러 있다. 한정된 건설시장에서는 수주산업의 속성상 '약탈적 경쟁'이 불가피하다. 그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건설업체는 경쟁력 없는 건설업체 뒤흔을 급속하게 잠식하게 된다. 이 같은 양상은 비단 건설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장을 멈춘 경제에서는 거의 언제나 양극화와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야기되었다. 따라서 양극화와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성장이다.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건설시장 규모의 성장 없이 건설업계의 양극화가 해소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2005년 일반건설업체 수주실적은 약 98조원에 달했다. 금년에는 1.6% 감소한 96조원 규모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시장 규모가 금년에 줄어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작년에 발표된 8.31대책과 금년 상반기에 또다시 발표된 '제2의 8.31대책' 등 민간주택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때문이다. 그리고 적어도 내년까지는 건설시장의 침체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더불어 양극화 해소는 당면한 국가적 과제다. 민간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가 어렵다면, 건설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선별적 집중투자를 통한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

금년부터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란 '대의명분(大義名分)'에는 당연히 찬성이다. 그리고 이 같은 대형 국책사업들이 건설산업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든다고 해서 지역개발이 되고,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해 공사물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건설산업의 신성장동력이 창출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과의 인프라 격차

구분	도로(km/km ²)	철도(km/km ²)	공항(천명)	해운/항만(10점)	발전량(Gwh/천명)
한국	0.88(22위)	0.031(20위)	34,331(8위)	6.07(28위)	7.21
미국	0.65(28위)	0.024(25위)	663,338(1위)	8.29(10위)	13.5
일본	3.07(4위)	0.053(17위)	109,123(2위)	6.75(22위)	8.7
독일	1.77(8위)	0.103(6위)	58,661(5위)	8.53(6위)	6.8
영국	1.62(12위)	0.068(11위)	70,436(3위)	6.73(23위)	6.6
프랑스	1.62(12위)	0.059(14위)	51,88(6위)	7.72(15위)	8.9

을 수행하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돕고, 지역간의 연계성을 제고하며,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건설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면서 건설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세계 10위에 해당하는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3년부터 3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 요인 가운데 하나는 사회, 경제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과 인프라 수준을 비교해 보

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은 세계 20위권에 불과하다. 국민소득 1인당 2만불 달성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선진국과의 인프라 격차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별적 집중투자' 방식이 필요하다. '집중투자'란 기업경영에서 주로 회자되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공공건설사업에 적용하여 투자 효율성(Value for Money)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집중투자의 개념은 단위적, 시간적, 공간적 차원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다.

첫째, 단위적 집중투자란 사업 수를 확대하기보

다 한정된 재원 하에서 소수의 선별된 사업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는 투자방식을 말한다.

둘째, 시간적 집중투자란 규모가 큰 사업이라도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그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완료되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예산을 집중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셋째, 공간적 집중투자란 동일한 사업을 다수의 지역에서 수행하기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 집중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집중투자를 통한 Big Project 창출은 장점도 많지만, 그에 수반되는 문제점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선별적'으로 이루어져 한다.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선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1999년 이후 Big Project는 감소 추세

1999년 이후 감사원의 감사대상 사업인 2조원 이상 초대형 건설프로젝트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1999년에 20건이었던 것이 2004년 현재 14건, 2005년에는 11건으로 줄어 들었다. 사실상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 건설사업 이후 국내 공공건설시장에서 Big Project가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별적 집중투자를 통한 Big Project와 소규모 분산투자는 각각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국가경제의 발전단계나 시장 상황, 정책목표나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상대적 효율성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 곳곳에 소규모 신도시를 건설하고, 10여 개 광역시도에 주요 공공기관을 끌고루 이전시키고, 낙후지역마다 산업교역형이나 레저 관광형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식의 분산

투자방식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제한다면, 국가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분산투자 방식의 실패사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국내 지방공항 건설사업이 아닐까 싶다. 오랫동안 정부는 지역 숙원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지속적으로 지방공항의 수를 늘려왔고, 특히 청주와 양양에는 대규모 국제공항을 건설하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18개 공항 중 주요 3개 공항 외 15개 공항의 수송 분담률은 미미한 실정이다. 전국 18개 공항 중 김포, 제주, 김해 3개 공항이 전체 수송의 78.9%를 담당하였고, 나머지 지방공항의 최근 4년간 수송분담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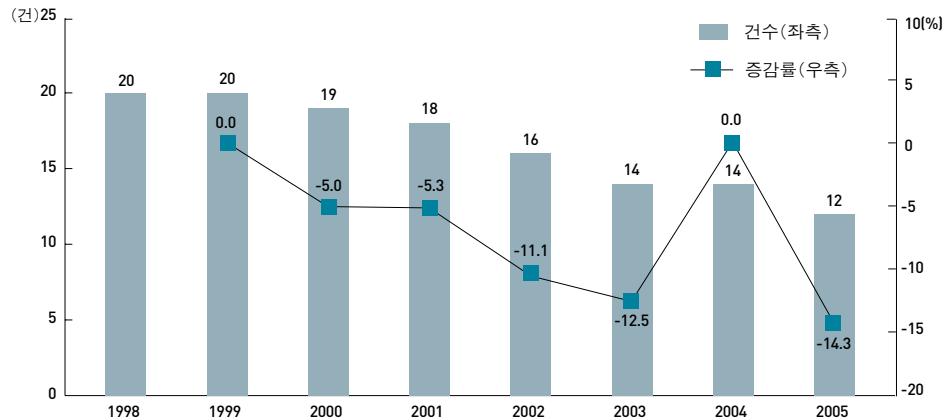
이 같은 현상은 국가경쟁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 교통인프라를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근거한 '선별적 집중투자'가 아니라 단순한 지역분배 차원에서 분산투자를 행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거니와 지역균형발전에 별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필요한 Big Project 예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검토, 국가차원의 목표수준 및 Global Trend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신성장동력 창출이 필요한 분야로 도시 재정비, 복합신도시 건설, 교통인프라 확충, 미래형 건설 등을 꼽을 수 있다. 각 분야별로 환경변화, 중앙 및 지방정부 계획사업, Global Trend,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총 19개 사업을 Big Project 대상 Pool로 선정해 보았다.

Big Project 대상 Pool

분 야	Big Project 대상 Pool
도시 재정비 사업	서울 및 광역시의 뉴타운 사업 청계천 주변 강북 도심개발 용산 미군부대 이전지 개발사업(에코 타운) 서울역 철도기지의 복합 오피스 빌딩존 개발사업 서울 동대문 운동장 및 잠실 운동장 리폼사업 공공기관 이전지 재개발 사업
복합 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 거점형 신도시 수도권 저밀 주거 단지형 신도시 개발 서남권 라이프 사이언스 파크(유기농산물, 식품가공, 제약 등 생명과학 산업의 집적) 충청권 대학연구도시(Campus Town)
교통 인프라 확충	경부고속도로 우회도로 경부선 삼복선화(서울 ~ 대전간 화물 전용선) 동서연결철도 서울외곽 순환철도 서울 올림픽대로 복층화
미래형 건설사업	한일 해저터널 도심 경전철 및 차세대 신교통 시스템 확충 조력 발전소 등 대체에너지 사업



2조원 이상 대형 공공건설공사 건수 변화 추이 (자료:감사원)

Big Project 창출로 건설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건설산업에서도 성장이 수반되지 않는 한 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하다. 건설산업에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사물량만 확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전략적·장기적 관점에서 선별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Big Project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의 첨단화,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Big Project 발굴이 필요하다. 이같은 Big Project 발굴을 정부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건설업계도 적극 나서야 한다.

도로공사의 최강자 캐터필라 노면파쇄기 PM-200



현존하는 캐터필라의 최첨단 기술과 새로운 디자인으로 완성된 노면파쇄기. 2005년에 유럽에 먼저 출시된 2m급의 PM-200은 이미 그 성능을 검증 받았을 뿐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도로보수 현장에서 또 하나의 캐터필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더욱 높아진 생산성을 자랑하는 PM-200은 유럽 배기가스 기준인 Stagell을 만족하는 저매연 저소음 엔진을 장착함으로써 환경보존에도 앞서간다.

글 / CAT장비마케팅팀 전상윤 대리

(1) 최첨단 ACERT 기술의 Cat C18 엔진

- 터보차저와 ATAAC 냉각시스템을 갖춘 583 마력 최첨단 엔진
- 엔진 연소과정의 세가지 핵심적인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배출가스 규제강화에 대해 제시된 캐터필라의 통합된 솔루션인 ACERT 기술 적용
- 최고의 연비를 위한 분사타이밍, 분사주기, 압력 등을 최적의 조건으로 전자 제어하는 MEUI 연료분사 시스템
- 다양한 부하와 속도에 맞는 공기의 양을 자동으로 조절하며 웨이스트게이트와 애프터쿨러의 온도를 이용하여 터보차저의 부스트 압력을 조절함으로써 완전연소에 가까운 효과를 통해 연소효율을 높이고 배출가스를 저감시키는 ADEM[™] A4 전자제어 모듈



Cat C18 엔진

(2) 드라이브 시스템

- 노면상태에 따라 유량이 자동 조절되는 가변식 하이드로스테틱 펌프
- 2 스피드 드라이브 모터
- 파쇄의 강도에 따라 37기 속도로 자동 조절되는 로드컨트롤 시스템



드라이브 시스템

(3) 로터 드라이브

- 효율적인 냉각과 윤활을 위해 독립적인 펌프, 필터, 크러치 제어밸브, 냉각장치가 있는 습식 로터 크러치 채택

- 파쇄물질의 강도에 따라 2가지로 조절 가능한 드라이브
- 벨트의 파손과 헛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벨트장력 자동조절 시스템

(4) 로터

- 2,010mm 파쇄폭, 최대작업 깊이 320mm
- 비트 칩체인지 시스템
- 178개의 고탄성 카바이트 비트
- 중앙의 비트의 마모를 줄이고 좌우측의 깨끗한 파쇄를 위한 3중 사이드 비트 디자인

(5) 로터 워터 스프레이 시스템

- 비트를 냉각 및 청소해 주며 먼지를 가라 앉힘

(6) 유압접이식 컨베이어

- 유압식 높이 조절
- 좌우 48° 도 유압 회전 (2실린더)
- 파쇄물의 흐름을 방지하도록 부착된 알루미늄 커버와 역방향 회전 가능
- 시간당 최대 880톤 이송능력

(7) 유압접이식 캐노피 (국내유일)

(8) 조종 패널

- 한눈에 장비의 작업상태 및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식 패널
- 장비 전체와 엔진의 상태를 실시간 파악하여 이상 발생시 3단계로 경고하는 컴퓨터 모니터링 시스템 (CMS)

(9) 전자동 그레이드 및 슬로프 컨트롤

(10) 독보적인 정비성

- 파워리프트 엔진도어
- 교환이 편리한 필터 위치
- 비트교체 및 일상 점검을 위한 유압 개폐식 로터 도어
- ET(전자진단)로 장비상태, 연료소모율 등 점검
- 배출이 편한 드레인 라인
- 유압시스템 상태를 쉽게 점검할 수 있는 S.O.S 오일 샘플링 포트
- 색깔과 코드로 분류되어 있는 전기라인



로터 드라이브



로터



조종 패널

◎ PM-102 (1m급)



◎ 진동롤러 (10.5~15톤)



◎ 콤비롤러 (2.5~3.7톤)



◎ 탠덤롤러 (1.5~13톤)



황금알을 낳는 2006년 유망 재테크

경제 흐름에 따라 재테크의 방법도 변하게 된다. 주가 상승, 달러 하락, 부동산 경기 침체인 요즘의 경기 흐름에 따라 재테크 방법도 변화가 있기 마련. 2006년 경기 흐름에 따른 유망 재테크 방법을 알아본다. 글/ 손민보(신한은행 분당PB센터 팀장)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동산 시장

8.31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돌려놓기엔 현재로서는 역부족인 듯하다. 공급부족과 400조가 넘는 풍부한 부동산금이 아직도 부동산 시장의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있다. 더구나 판교청약을 신호탄으로 '내 집마련'을 위한 실수요가 가세하면 시장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주택과 토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풍선효과로 상가투자에 관심이 일고 있으나 가격이 많이 오른편이어서 임대수익과 자본이득을 동시에 추구하기엔 여의치 않다.

투기수요는 정부의 규제로 운신의 폭이 좁겠지만, 내 집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라면 정부의 안정대책에 막연한 기대를 걸다가 매수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판교청약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시장조사에 나설 것을 권하고 싶다. 한편, 지역별, 평형별 차별화가 심해져 소외 받는 지역과 인기지역의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 될 수 있으므로 지역과 평형을 선택할 때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천정과 바닥을 다지는 주식시장

수많은 악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증시에서 가장 큰 악재는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아닌가 생각된다. 작년 한 해 50% 가까운 상승에 대한 부담과 이익실현에 대한 욕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와 환율, 금리, 글로벌 경기둔화 등의 뉴스가 장기간 주식시장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장을 떠받치는 힘 또한 만만치 않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세계 주요증시 대비 저평가 인식이 여전한데다, 살아나고 있는 경기와 좋아진 한국 기업의 체력, 약화된 것이나 꾸준하게 유입되는 간접투자 자금 등을 고려해 볼 때 시장의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바로 이러한 부담감과 자신감이 서로 교차하며 어느 해 보다 부침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형 투자상품은 기대수익률을 낮춰 잡고 안정성을 우선 고려한 보수적인 투자전략을 가져가도록 권한다. 유망상품으로는 적립식펀드와 시스템펀드를 추천한다. 적립식펀드는 타이밍을 매일 또는 매주, 매월 단위로 철저히 분산해서 투자하면 급등락에 따른 가격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시스템펀드는 말 그대로 시스템에 의해 일정조건하에서 자동으로 분할매수 분할매도를 기계적으로 반복하여, 요즈음처럼 등락이 심할 때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가는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나기가 지나간 채권시장

작년 한해 채권시장은 참으로 외롭고 쓸쓸했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형펀드 수익률이 급락하자 대부분의 채권 거래자들이 채권시장을 떠났다. 계속 치솟을 것으로 보이던 시장금리가 올해 들어 숨 고르기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안정되어 가고 있다. 올해는 채권시장에서도 정기예금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식형 상품의 변동성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우선 고려하는 투자자들은 채권형펀드를 포트폴리오에 일부 추가 편입할 것을 권한다.

예상보다 깊은 환율하락의 골짜기

새해벽두부터 급락하기 시작한 환율 때문에 정책당국과 수출기업은 비상이 걸렸다. 해외펀드 등에 투자한 개인들도 환율급락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받아야만 했다. 좀처럼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무역수지 적자 문제로 미국은 강하게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을 압박할 것이며 올해는 그 효과가 일부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평가절상이 본격화 될 경우 글로벌 달러 약세로 인한 원화 동반강세가 펼쳐질 수 있으며, 예상 밖으로 큰 폭의 환율하락이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해외펀드 등 외화로 투자할 때는 가급적 선물환 계약을 통해서 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 둘 것을 권한다.

Titan 세미나 실시



지난 2월 28일 (주)헤인 잉카슬랜드 장비 영업팀에서는 올해 새로이 국내 판매를 시작한 Titan7820 장비에 대한 장비 시연회 및 세미나를 천안공장에서 실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37개 업체에서 70여 분의 고객이 참석하여 타이탄 장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BG Titan 모델들이 4가지 숫자의 조합으로 변경된 사실들을 고객들에게 사전 홍보함으로써 장비 도입 후 고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당사 주력 판매모델인 Titan7820의 달라진 점들을 소개하여,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ABG Titan의 이미지를 고객들에게 심어주었다.

또한 트랙피니셔에 비해 휠피니셔에 대한 관심이 극히 미약했던 국내 고객들에게 Titan 휠 피니셔의 우수한 성능 홍보 및 소형 모델인 Titan3870의 시범포설을 통하여 휠 피니셔의 성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캐터필라 'C시리즈' 발전기 세트 출시



(주)헤인은 캐터필라에서 새롭게 개발한 환경친화적 발전기 세트 'C시리즈'를 2006년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캐터필라에서 생산중인 C시리즈 모델인 C18은 과거의 3412모델의 550KW~600KW 용량을 대신하며, C32는 과거의 3508모델인 900KW~1000KW 용량으로 대체되었다. 'C시리즈' 엔진 발전기는 캐터필라가 자랑하는 ACERT(Advanced Combustion Emission Regulation Technology)를 야심 차게 도입한 엔진으로 과거의 모델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기가스의 유해성분을 줄이고, 발전기의 부피도 줄이면서 과거의 모델과 동일한 출력을 얻을 수 있게 설계되었다. 또한 기존의 EMCP 2 운전반보다 한층 기능이 강화된 EMCP 3 탑재형 운전반이 모든 'C시리즈'에 도입됨으로써 운전자에게도 한층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다.

헤인 동우회 소식

지난 3월 9일에 헤인동우회 총 42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6년도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참여인원 만장일치로 회장 유임을 의결하였으며, 동우회 기금 결산보고에 이어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회장단 및 회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였다. 다음 모임은 2006년 5월 11일에 영등포 동우회 사무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고객 리워드 프로그램 시행



(주)헤인의 고객 지원 본부에서는 지난 2월에 2006년도 고객 리워드 프로그램인 CAT Members Club의 시행을 발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고객별 부품 및 서비스 구매 실적에 따라 연간 5~12%의 리워드를 익년도에 제공하며, 전년도 대비 증가된 구매 실적에 대하여 별도로 5~9%의 추가 리워드도 제공한다. CAT Members Club은 가입 자체로도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객 우대 프로그램으로서 리워드 금액은 다음 년도 부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으며, 고객 지원본부가 제공하는 각종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 시행 초기부터 고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으며, 고객 지원 본부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과 헤인이 함께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캐터필라 불도우저 D9T 장비 전시회



(주)헤인 장비사업본부는 새롭게 출시된 캐터필라 불도우저 D9T 출시를 기념하여 지난 2월 24일 천안 정비 공장에서 고객초청 장비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캐터필라 D9T 불도우저는 캐터필라가 자랑하는 최첨단 배기가스 저감기술인 ACERT 기술이 적용된 C18 Tier III 엔진이 탑재되었고 작업 생산성 및 운전자 편의성이 더욱 향상되어 향후 대형 불도우저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개념 공구 '슬라이드 슬래지' 출시



(주)헤인의 Allied 사업본부는 각종 핀 제거 및 장착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신개념 공구인 '슬라이드 슬래지'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국내고객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슬라이드 슬래지'는 기존 스윙방식의 핀 제거 및 장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원천제거 하여 작업의 안전성 및 작업 시간에 대한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여러 종류의 팁을 각종 작업용도에 맞게 탈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개념 Tool이다. 현재 (주)헤인에서는 각 지점 및 영업소에 본 제품을 전시하여 요청 고객에게 작업시연을 실시중에 있다.

문의 : (주)헤인 Allied 사업본부 황인성 사원

02)3498-4623, 010-3322-1860



먹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한 가지 주제를 관통하는 특정 건에 있어서도 그 가짓수는 여러 프리즘으로 발산된다. 2006년 사보에서는 한 가지 테마 아래 있지만 다른 의미로 점층되는 다양한 건들을 짚어보는 <비교체형 극과 극>을 마련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음식에 대한 정반대의 증상인 거식증과 걸식증을 살펴본다.

글 / 박태균(중앙일보 의학기자)

극단적인 식사 거부, 거식증

거식증의 정식 병명은 신경성 식욕부진(anorexia nervosa)이다.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은 식사량을 극도로 줄인다. 극단적인 식사 보이콧이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한다. 몸이 충분히 날씬해져도 이들의 식사 거부는 계속된다. 뼈만 앙상해져도 이들의 식사 기피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여전히 자신의 몸에 불필요한 살과 지방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식사를 기피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살찌는 것이 너무 두렵고 싫어서다. 이들은 특히 지방을 혐오한다. 둘째, 성숙·독립에 대한 불안 심리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자녀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 에 이 병의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다. 셋째, '뚱뚱한 여자는 성적 매력이 없다'는 왜곡된 사회 통념도 병을 부추긴다.

거식증은 환자에게 엄청난 신체적 부담을 안겨준다. 영양이 부족해져 신진대사가 떨어진다. 호흡이 느려지고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진다. 월경이 불규칙해지거나 중단된다. 너무 이른 나이에 거식증을 경험하면 초경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 체지방 비율이 15% 이상 돼야 월경을 시작하는데 이들의 체지방 비율은 이보다 낮을 수 있어서다.

거식증은 지방은 물론 근육의 양까지 감소시킨다. 심장의 근육까지 줄어들어 심장의 크기가 정상인보다 훨씬 작은 환자도 있다. 이는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들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들어보면 심장에서 잡음이 들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거식증은 또 뼈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칼슘 공급이 부족해진 탓이다. 그래서 뼈의 성장이 지연되거나 가늘어진다. 뼈에 구멍이 숭숭 생기는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 거식증의 특효약은 아직 없다. 영양을 적절히 공급하고 심리·행동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최상의 대책이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 80% 이상이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폭식과 구토의 반복, 걸식증

걸식증(bulimia)은 거식증보다 흔한 병이다. 이 병은 '거식증의 속편'으로도 통한다. 걸식증 환자의 상당수가 거식증을 미리 경험한다는 이유에서다. 걸식증과 거식증 환자는 서로 비슷한 면이 적지 않다. 둘 다 비만을 극히 두려워한다. 체중을 줄이려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다. 완벽주의 성향을 보인다는 사실도 공통된다.

그러나 굶다 죽을 정도로 '고집 센' 거식증 환자와는 달리 걸식증 환자의 인내력은 한계가 있다. 거식증 환자는 대부분 '확신범'이지만 걸식증 환자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걸식증의 전형적인 증상은 폭식과 구토다. 이들의 폭식은 상상을 초월한다. 2시간 만에 50,000kcal를 섭취한 환자도 있었다. 이들은 폭식 도중 고칼로리 음식만 골라서 먹지만 본인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걸식증 환자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심한 복통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이 '그만 먹으라'고 애원한 뒤에야 폭식을 멈춘다. 이때부터 이들은 자신을 질책하고 혐오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폭식한 음식을 다시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억지로 토하거나 구토제를 복용한다. 완하제·이뇨제를 복용하기도 한다. 때로는 단식을 불사하며, 운동량도 극도로 늘린다. 이들의 반복적인 구토는 위와 식도를 손상시킨다.

그러나 이들은 한동안 외견상 건강해 보인다. 걸보기엔 완벽주의자, 성공 가능성이 큰 사람으로 비춰지지만 내면을 보면 자신감이 결여되고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걸식증의 치료법은 거식증과 별로 다르지 않다.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고, 행동·정신의학 치료를 받아야 한다.

미국 코넬대학의 심리학자 보스킨드 화이트는 거식증·걸식증 환자는 모두 사회적 희생자라고 풀이했다. 가냘팸·날씬함을 여성미의 첫째 조건으로 꼽고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풍조가 결정적인 병인(病因)이라는 것이다. 먹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식증과 걸식증. 날씬함이 여성의 제1조건이 된 요즘의 풍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문제이다.

Congratulations!

승진을 축하합니다

발전에너지팀	부장	곽윤수
Allied Parts&Service팀	부장	이유근
부품및서비스마케팅팀	차장	이민희
금융무역팀	차장	손황교
인천지점	차장	육웅수
영등포영업소	과장	김수열
인천지점	과장	김정기
기술서비스팀	과장	이주일
전주지점	과장	김대영
부품및서비스마케팅팀	대리	박성일
퍼킨스/산업용엔진팀	대리	박연진
기술서비스팀	대리	최진우
기술서비스팀	주임	김재열

결혼을 축하합니다

부품및서비스마케팅팀	대리	방석원
기술서비스팀	대리	최진우

입사를 축하합니다

경영기획팀	사원	이민정
발전에너지팀	대리	최명석
발전에너지팀	사원	김대희
6Sigma팀	대리	고종욱
6Sigma팀	사원	원종식
전산팀	사원	최규하
물류영업팀	사원	모나영
기술서비스팀	사원	신동선
기술서비스팀	사원	이중희

자녀 출생을 축하합니다

기술지원팀	대리	김덕영
동해지점	대리	김동현
대구지점	사원	황은선

지난호 그림맞히기 퀴즈 정답

2	6	3
1	4	7
8	9	5

독자 나눔터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보 애독자 중 한 사람입니다. 새해에는 해인의 기술력으로, 더 좋은 고객 맞춤형 장비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언제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경북 의성군 단촌면 상화2리 736번지 김경덕 님

장비하는 사람들의 소원이 캐터필라 장비를 소유하는 것이라는데, 드디어 우리 신랑이 그 소원을 풀었습니다. 작업 중 돌이 날아와 앞 유리창을 때릴 때 '아! 유리창 박살이다' 싶었는데, 너무나 멀쩡해서 '역시 캐터필라구나!' 라고 다시 한 번 느꼈다고 하네요. 대만족입니다.

- 동해시 동회동 90번지 협성아파트 102동 203호 장중호 (김미자)님

안녕하십니까? 알찬 사보 잘 읽어보았습니다. 병술년 새해도 나날이 발전하고 행복한 해인이 되길 바랍니다.

- 경기도 평택시 비전2동 835-4번지 안영근 님

저는 D6, D7, D7G, D8K, D8L 등의 캐터필라 도자를 25년간 운전해온 정비기사입니다. 든든한 캐터필라 장비와 함께 하면서, 뛰어난 성능을 매번 실감하고는 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더 번창하는 해인이 되기 바랍니다.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6반 천은윙터 백도현 님

음악으로 세상을 보는 전재덕 씨의 하모니카 인생담은 새로운 용기를 줍니다. '사람은 의지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던 파블로 네루다의 말이 떠오릅니다. 앞으로도 더욱 번창하는 해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궁리 135번지 (주)유정산업 문상수 님

엽서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문의 : 이승일 과장(silee@haein.com) 02-3498-4524

2 0 0 6

S P R I N G

애 독 자 카 드

● 오른쪽 그림을 왼쪽 그림에 맞게 재배열해 보세요. 아래에 있는 빈 칸에 순서를 올바르게 배열하여 적어 주세요.

7		



● 독자나눔터의 신고 싶은 사연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우 편 엽 서

보 내 는 사 람

□ □ □ - □ □ □



(주)해인 사보편집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92-6 해인빌딩